

#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27>

메테르링크가 그의 동화 <파랑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파랑새>에서는 주인공인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행복의 성 주변의 여기 저기를 헤매며 저런 산속까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방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진짜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끝내 실망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뒷밭에 집 안 가장 가까운 창가의 새장 속에서 지지 배배 하며 그 행복의 파랑새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의외로 그와 같이 우리들 가까운 주변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불행의 원인인 마음속의 고통(四苦八苦)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고(苦)로부터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곧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의 고(苦)로부터 낙(樂)으로 이르는 길을 찾아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행복 추구자'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행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 즉,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의 '최소한'이 되는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경제학자 스미스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富)나 지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며, 그 행복은 보편적 수준(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최소한'도 유사한 개념일 것이다. 스미스의 경제학에서는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경제경쟁'을 강조한 바 있지만, 그러

나 가장 중요한 행복은 그 후 2백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축소되고 정지되었다고나 할까. 오직 욕망 충족의 시장경쟁만 가속화해 온 것이라고 이미 필자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불교의 목표는 고(苦)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즉 해탈(解脫)에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고'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인은 이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대로 하게 하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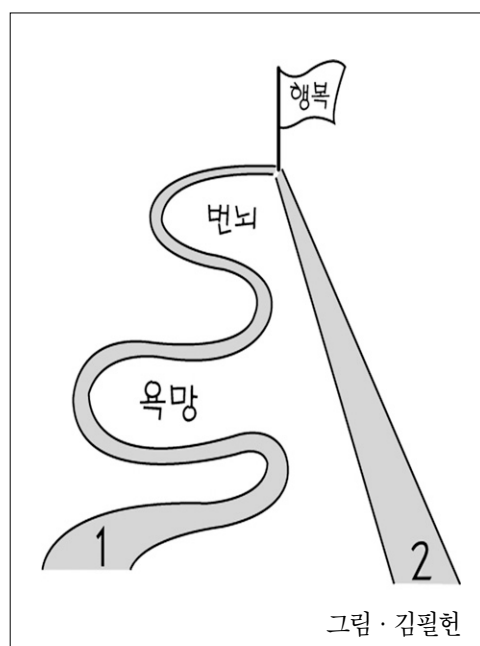
그런데 불교는 이 '생각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생각했다. 그것은 '얼어지지 않는다'든가 '공(空) 개념으로 소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경제적 행복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보자.

\*행복 = 재화 / 욕망

위 식에서 분자를 크게 함으로써 행복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서양식이라고 한다면, 분모를 작게 하는 것이 동양식 혹은 불교식인 것이다.

'공'이라든지, '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소극적이고 차갑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표현한다면 첫째로 살려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 둘째로 살려지고 있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이 불교의 중요한 사상이다. 요컨대 '연기(緣起)법'의 현대적 표현인 것이다.

인간은 태양, 공기, 물 없이는 한 시도 살 수 없다. 확실히 우리들 인간은 우주나 동식물 등의 다양한



자연물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유아기에 어머니가 꼭 껴안고 알맞게 젖을 먹이는 것으로부터 기본적 신뢰감(안정감)을 얻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발육한다. 즉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이 세상에서 '살려지고 있다'고 하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사춘기에 달하면, 자아의 관념이 길러지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 '생각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먼저 버리자

## '우주의 리듬' 거스른 것에 대해 '미안하다' 참회해야

근대 서양문명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명제위에 선 합리론적 자아문명이다. 우리 한국인은 1960년대 이후 절대 '빈곤의 함정(Trap)'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성장 만능의 개발철학에 몰두해왔기 때문에 '살려지고 있다'는 불교 관념은 무시돼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살려져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살려지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무심코 참으로 '매우 고맙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을 할 것이다. 인간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우주의 전 존재를 대표해 소리를 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살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자, 이기심(ego)에 빠진 자기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가 '미안하다(부끄럽다)'고 하는 말이다. 이것은 불교라고 하는 것보다 인생의 원질일 것이다. 불교에서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며, 부처님 덕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고맙다'와 '미안하다'고 하는 두 가지 깨달음은 석가모니부처님 입멸시의 가르침인 '자명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정신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이 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느꼈을 때, 우리들은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그런 경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할 여지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의 파고 들어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나날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의 연속이다. 그 때문에, 우리들 범인들에게 가능한 것은 '~하고 싶다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것의 내용이 우주의 리듬·법칙에 따르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의 리듬이나 법칙이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면, 낮과 밤이란 확실한 리듬이 있지만,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는 명확한 리듬이 없다. 인간에게는 개체유지 본능과 건강한 성장본능 등 우주법칙에 조화하는 리듬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야 하는지는 리듬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생존경쟁이야말로 우주의 리듬·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경합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우주의 리듬·법칙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 논리는 명확한 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업사회에 사는 인류가 이 우주의 리듬·법칙에 계속 반하는 결과, 현재와 같은 지구환경의 위기를 초래한 것만은 확실하다. 대체로 문명, 특히 공업문명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의 집적이며, 우주의 리듬·법칙에 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인간은 '살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고맙다'고 감사하며, 이제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주의 리듬을 거슬러 살아온 것을 '미안하다'고 참회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닐까 싶다.

■ 인종대 경제학과 교수

### 27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23세기쯤 되어서, 인체 각 부분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게끔 과학이 발달하였다. 당연히 뇌(腦)도 마음대로 골라 바꾸어 넣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고객이 뇌 가게(Brain Shop)에 들러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적당한 뇌를 고르고 있는 중이었다. 진열장을 보니 단돈 \$5,000의 싸구려 뇌부터 수만 불, 수십만 불 단위의 뇌까지 아주 다양하다. 익숙한 이름이 있어 가격표를 보니 '아인슈타인 \$50,000' 이렇게 적혀 있다. 제일 비싼 뇌는 포장도 아주 호화롭게 되어있고 가격이 \$300,000나 된다는데 아무래도 거기 적혀진 이름이 낯 설은 이름이다. 마침 가게 접원이 지나가기에 넌지시 물어보았다.

"저건 도대체 누구의 뇌인데 저렇게 비싸지요?" 접원이 말했다. "아, 이거요? 이건 20세기 한국 정치인 도 장관의 뇌인데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신품(新品)이거든요." 군사정권 시대에 유행하던 블랙 유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관 명칭을 떼어버리면 문민(文民) 정치인 범용으로 쓸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 책략이 나쁜 방향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정치인을 여럿 겪은 뒤라 이 유머는 그만 유효성이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라, 고객 누구나가 자신의 뇌를 갈아 끼우기 위해 새 뇌를 산다면, 뇌 상점에서 인기 있는 뇌는 책

## 허달의 불교와 코칭

략가의 뇌일까, 시인의 뇌일까, 아니면 과학자/철학자의 뇌일까? 내 개인적 소망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시인의 뇌를 고르겠다는 원해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교재라를 세계 100대 기업으로 일컫는 뒤 탁발승으로 돌아간 이나모리 회장이 <카르마 경영>이란 책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SK의 '최종현 사장학'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도(道)가 필요하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 '일 도'에서는 기업경영의 원칙과 함께 자발적, 의욕적 환경 하에서의 두뇌활용(Brain Engagement)이 강조된다. 두뇌활용이라는 용어는 과정(Process)에 주안점을 둔 표현일 뿐이고, 이 역시 목표하는 결과물은 창의력이다. 영구 존속을 목표로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려는 의제(擬制)된 인격적인 기업과, 길이가 3~40년 동안 공헌하다 결국은 떠나야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공간 괴리를 메울 수 있도록,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승-승(win-win)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승-승을 이루는 가치는 나누어서 즐기 않는 풍요로운 마음가짐(Abundant Mentality)에 합당한 가치여야 한다. 나 누면 줄어드는 돈, 명예 같은 가치는 기업 경영을 승-패/패-승의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기업과 구성원 사

### '창의력', 상상력과 패러다임 전환의 산물

이에서 지속 가능한 시너지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궁극적으로는 외해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무엇일까? 전문코치들의 기업코칭 워크숍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다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윤추구'라는 경제교과서의 정답보다 '사회적 공헌'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어서 놀라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거기 모였던 전문코치들의 전례(前例)이

그러했다. 학생 운동을 통해 사회를 정화하려는 때 매진하던 분들이 그 연장선 상에서 코칭에 입문해, 코칭을 통해 사회와 그 구성원 개조를 지속하려는 목표에 뜻을 두고 있거나, 기업 출신이라고 해도 대부분 HR 부서에 근무하던 분들이 구성원의 성취와 완성이라는 측면에 가치를 두고 기업코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코칭은 이윤추구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추구하는 것을 제1의(第一義)로 삼고, 기업과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성원,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승-승 할 수 있는 공통적 가치 추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 공통가치를 '창의력'에 의한 성공체함과 그 선순환(善循環)이라고 놓고 보면 문제의 해답이 보인다는 것이 이른바 '일 도'의 착안점이었던 것이다.

개인 창의력은 상상력과 패러다임 전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집단창의력은 승-승과 공감적 의사소통을 추구하여 서로 다름을 축복 삼는 시너지의 현재화(顯在化)라는 점에서, 둘 다 기업코칭이 목표로 삼고 있는 주된 본령이다.

기업경영은 냉철한 결정에 늘 직면해야 하는 비정당한 일임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시인의 뇌를 사서 장착해서는 이에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분이 만약 있다면, 많은 성공한 기업인들이 여짜서 "Burning Yes(불타는 예스)"를 주장하는 낙관주의자들이며 기본적으로 감성주의자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 봉 유산아. 낙태아(수자령) 영가 49일 특별 천도재

### 1. 아무리 어려워도 유산아(수자령) 영가 천도만은 꼭 해 줘야,

유산아(태아령)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중에서 죽은 것이기에 이승의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크다. 그런 태아령은 빨리 삼도천(三渡川)을 건너서 불계(佛界)에 가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공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천도해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여진다.

비록 이름 없고 세상에 햇빛을 보지 못 한 낙태아, 사산아일지라도 불교적 생명관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한 생명체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지성으로 천도하고 영혼을 달래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생지장도량 철원 심원사에서는 유산아(수자령) 영가만을 위한 특별(유산아수자령영가만단종) 천도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다 같이 동참하시어 이 세상 빛과 이름을 갖지 못한 우리의 수자령 영가님에게 불명( 이름)을 지어 주고 속세의 한없는 미련을 떨치고 서방정토에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천도공양에 두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 유산아. 낙태아(수자령) 영가 특별 천도재 일정

입재 : 2009년 12월 20일 (음 11월 5일) 일요일	4재 : 2010년 1월 17일 (음 12월 3일) 일요일
초재 : 2009년 12월 27일 (음 11월 12일) 일요일	5재 : 2010년 1월 24일 (음 12월 10일) 일요일
2재 : 2010년 1월 3일 (음 11월 19일) 일요일	6재 : 2010년 1월 31일 (음 12월 17일) 일요일
3재 : 2010년 1월 10일 (음 11월 26일) 일요일	회향 : 2010년 2월 7일 (음 12월 24일) 일요일

- ◆ 행사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철야 기도 합니다.
- ◆ 기도 동참금 : 한 가족당 동참금 기본 7만원 + 수자령 영가 1위 마다 2만원씩 추가
- ◆ 입금계좌 : 농협 238-01-199000 / 국민은행 324501-04-042961 [예금주 : 심원사]
- ◆ 차량문의 : 하나관광 작 목 기사 011-263-7809 하나관광 사무소전화 : 02)395-7781 (왕복 13,000원)  
: 행사기간 중 조계사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전 7시 차량운행 합니다. 미리 예약 바랍니다.
- ◆ 자세한 것은 중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전화 033)455-5882, 455-3468 / 팩스 033)455-0419

대한불교조계종 철원 심원사 주지 정 현 합장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2번지

##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늦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조법 : 뇌수속에 혼승된 아뢰아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력하게 태운다.

###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문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부터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해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이자 된다.

###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렵듯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효 체험신청하세쇼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